

전북교육청, 제2회 추경 1415억 증액

기정예산 4조7056억원보다 늘어... 4조8471억원 편성
새 교육 비전 · 공약사업 추진, 필수 · 의무적 경비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조8,471억원을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7,056억원보다 1,415억원(3.0%) 늘어난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공약 ·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 등 필수 ·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제2회 추경 확정 이후 실제 사

업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연내 추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새로운 교육 비전과 공약사업 실행 기반 마련에는 25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80억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48억원, 학생회실 및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 18억원, 창의예술·대공간 설립 · 운영 9억원,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지원 13억원, 학교폭력 대응 지원 7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진로 · 진학 교육과 학생 자치, 인문 · 예체능교육, AI 교육,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 새로운 교육정책

을 교육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에는 126억원을 반영했다. 늘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2억원, 학교체육 시설 관리 21억원,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14억원, 특수교육 교재 · 교구 지원 8억원, 융합교육(STEAM) 지원 9억원, 교육협력 사업 지원 47억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2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조성 16억원, 직업교육 여건 개선 56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149억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11억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수요에 대응한다.

학교 시설과 인건비 등 필수 · 의무적 경비에는 9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향후 교육시설 투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기금 전출금으로 683억원을 편성했다.

시설 기금 전출금은 대규모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반영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단기간에 소진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고, 향후 필요한 교육시설 투자에도 차질이 없도록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열리는 제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격변의 시대, 교육대전환’

전북교육연구원,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 초청 특강
‘존엄주의 · 성숙 · 연대 · 사유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원은 26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지방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누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 교육대전환'을 주제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미래교육을 이끌 교육행정가의 관점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교수는 생태적 · 정치적 · 사회적 · 교육적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대 위기의 시대'를 진단하고, 우리 교육이 경쟁지상주의와 주입식 교육, 학력 중심의 서열화에 지나치게 매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의 본질이 학생의 행복과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이 '능력주의 교육'에서 '존엄주의 교육'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에서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경쟁교육'에서 '연대 교육'으로, '지식 교육'에서 '사유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판적 사유 능력과 창의적 상상 능력, 포용적 공감 능력을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했다.

강의에 앞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김누리 교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경쟁과 서열 중심 교육에 일침을 가하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교육'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해 오신 분"이라며 "오늘 특강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강행 멈춰라... 교육 현장 목소리부터”

혁신당 강경숙 의원,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 기간 대폭 단축 추진
교부율 20.79%, 단순 순자가 아닌 세수 연동해 교육재정 보장위한 장치”

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도당 위원장(비례)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거 교육위원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 무만 봤다. 숲을 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관이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은 숲이 아니라 뿌리”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 역사적 약속”이라며 “54년 된 제도를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인 20.79%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수와 연동해 교육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인건비와 세수 변동이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박 장관이 영유아와 고등 · 평생 교육 분야의 저투자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새로 만든다는 기금의 조문 어디에도 초 · 중등교육 지원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저투자

가 문제라면 이미 해당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회계를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만큼 제도를 다듬는 것인 지 근간을 들어내는 것인지 충분히 따져볼 시간이 필요했다”며 “정부의 강행을 멈추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개편안은 숲을 키우는 길이 아니라 나무들이 마실 물을 서로 빼앗게 하는 설계”라며 “조국 혁신당은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우리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촌 · 국제유학 아우르는 ‘전북유학’ 확대 시동 | 천호성 교육감 핵심 공약 추진단 8월 정기회 개최

교육계 등 15명 추진단 구성
특성화고 국제반 도입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존 농촌 유학을 넘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전북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북유학'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유학'의 확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전북유학 추진단(TF)' 8월 정기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교육계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전북유학 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농촌유학 확대 · 활성화와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 · 운영 등 전북유학의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농촌유학 분야에서는 운영학교와 유학생 선정 및 운영기준 개선 관련 사례 보완, 신규 사업 발굴과 확대, 시 · 군과 협력한 테마형 교육과정 발굴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지역 농촌유학은 올해 1학기 기준 도내 44개 학교에서 333명이 참여하고 있다. 2학기 참여 인원은 9월 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유학'의 확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전북유학 추진단(TF)' 8월 정기회 를 개최했다.

집계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지역과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학교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거주 시설을 확보해 농촌유학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유학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운영 매뉴얼 개발, 국제반 운영학교

와 대상 국가 선정, 해당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과 국제유학을 연계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전북민의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교육 ·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

북유학은 학생들에게는 전북민의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교육 정책”이라며 “농촌유학의 확대와 국제유학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보호수 보전 · 관리분야 전문성 키운다

우석대, 랜더포레 · 태극포레로드와 협력체계 구축

우석대학교가 보호수의 체계적인 진단과 복원 관리를 위한 전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희석)은 26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주석회사 랜더포레

(대표 임태성), 태극포레로드(대표 김미경)와 보호수 및 조경수목의 보전 · 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휴먼&에이저 치유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와 기술 역량을 연계해 보호수와 조경수목의 체계적인 진단 · 복원 ·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호수 생육 환경 및 피해 현황 조사 조정 및 수목진단 · 진료를 위한 기술 교류와 공동 자료, 보호수 생육진단 및 복원계획 수립, 수목의과수술 및 방부처리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한다.

또 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성과

를 공유하는 한편 국책과제와 관련 연구 ·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 · 수행할 계획이다. 보호수 보전 ·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휴먼&에이저 치유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보호수의 생육 상태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연구와 기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노조와 갑질 피해 상담체계 강화

피해자 초기 상담부터 신고 · 보호까지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교원 4개, 지방공무원 4개, 교육공무직 3개 등 총 11개 노동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갑질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조합이 갑질 피해자의 초기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담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수립한 '2026년 갑질 근절 추진계획'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기된 갑질 상담 전문교육 필요성을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초기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 시 유의사항, 신고 절차

와 피해자 보호제도, 실제 상담사례를 활용한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강사로는 전북교육청에서 갑질 피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안심노무사가 참여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심노무사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이나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비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제도다.

이훈열 감사관은 "갑질 피해자는 신고에 앞서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조합이 피해자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